

The Study on The Life Patterns and Learning Patterns of An Middle and Old Age Korean¹⁾

Yang, Heung Kweun²⁾ (Daegu University, Professor)

Nam, Mi Ran (Daegu Cyber University, Lecturer)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sis of Korean middle and old age people's life patterns and learning patterns. This study consist of two year study. First year's study is to analysis of Korean middle and old age people's living patterns and learning patterns. Second year study is to develop lifelong learning support model of Korean middle and old age people to support their double cropping life.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first year study. So researcher aims to analysis of Korean middle and old age people's life and learning patterns. Researcher selected 27 middle and old aged Koreans considering on their sex, age, income and academic background. This study use qualitative methods especially semi-constructed depth interview methods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Middle and old age Korean's living and learning patter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social economy backgrounds. Female participants are more actively living their life and participate in nonformal and formal learning programs. High level academic background participants are more actively living a life and participate in nonformal and formal learning programs than low level academic background participants. And high level academic background participants are actively practice various areas and participate various kind of learning programs. High income participants are more actively living a life and participate in nonformal and formal learning programs than low income participants. Specially middle income participants are most actively living a lif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learning programs. Researcher investigated participants request for supporting their usual living and learning. The findings of the request is as follower. Similar social economic groups have similar request on living and learning. Finally policy-making for supporting middle and old age Korean is a basis on the people's individual case and situations.

Key words : Middle and old age people, living a life, lifelong learning, life pattern, learning pattern

1) This research funded by NRF from Ministry of Education's finance in 2017(2017S1A0A2A01027058).

2) Corresponding Author: Yang, Heung Kweun, Professor, Daegu University, 201 Daegu-daero, Jillyang-eup, Gyeongbuk-si, North Gyeongsang Province, Korea 38453 / E-mail: heungkweun@hanmail.net.

중고령 성인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에 관한 연구¹⁾

양흥권²⁾ (대구대학교 교수)

남미란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 요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 성인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이 중년 이후의 생애를 재설계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평생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총 2년 간 연구과제로 1차년도 연구는 중고령 성인의 생활과 학습패턴을 분석하는 연구이며, 2차 년도는 1차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중고령자의 생애 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지원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즉,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고령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그들의 생활과 학습패턴이 어떻게 다른 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총 2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성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변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생활과 학습 패턴을 보인다. 분석결과를 개관하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생활과 학습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하다. 저학력자들의 사회참여와 학습실천은 매우 미약하고, 중학력과 고학력에 해당하는 집단의 생활과 학습이 활발하고 활동 내용과 사회활동 영역이 다양하다. 저소득자들은 생활과 학습이 모두 미미하고, 소득수준 중과 상에 해당하는 이들의 생활과 학습은 활발하다. 소득수준 중에 해당하는 이들의 생활과 학습은 매우 활발하고 다양하다. 연구참여자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공적 지원에 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동질집단일수록 요구도 유사하고 이질집단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가에서는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생활과 학습에 대한 구체적 정책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중고령자, 평생학습, 생활패턴, 학습패턴, 평생학습요구, 생활요구

1)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2017S1AOA2A01027058)

2) 교신저자: 양흥권, 교수, (38453) 경북 경산시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 E-mail: heungkweun@hanamail
논문투고: 2019. 11. 14 / 심사일자: 2019. 11. 19 / 게재확정일자: 2019. 12. 9

I. 서론

오늘날 인간의 수명 연장과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중·고령자들의 삶과 노후생활준비와 경제활동 등이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 전체 인구구성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비롯한 중·고령자들의 급격한 은퇴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잠재적 연령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고령자의 문제는 향후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건강 문제, 사회활동 문제 등의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고령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과 이를 위한 평생학습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이들의 생활과 학습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고령자의 생활과 평생학습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중·고령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와 평생학습경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Che, Kang, & Kwon, 2016; Choi, 2016; Jung, 2017; Kim, 2017). 이 같은 연구는 중년과 고령의 성인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동기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변화와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에서 공통된 점은 중·고령 성인들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평생학습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생애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거나, 제 2의 생애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나눔과 배려를 경험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를 재인식하고 발견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중·고령자들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관한 다른 종류의 연구는 중년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Jun, 2016),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와 활동적 고령화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한 연구, 중·고령 성인의 평생학습 유형과 활동적 고령화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이 같은 연구는 중·고령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들이다.

Jun(2016)은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학위논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다문화여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세분화와 다양화가 부족하다. Lee & Han(2006)의 연구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중·고령자가 제2의 생애설계를 위하여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재취업과 창업 준비가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 31.5%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고령자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참여하는 이유는 취업, 창업, 자격취득과 관련되어 있다. 즉, 그들이 고등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직업능력 개발, 직업유지, 인생설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Byun(2011)의 연구에 의하면, 50세부터 80세 사이의 고령패널 자료를 토대로 중·고령 성인의 평생학습과 활동적 고령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고령 성인의 평생학습 활동 수준은 낮고 여성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고령자인 경우 평생학습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수준이 낮은 중·고령자들은 신체적, 인지적 건강과 활력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활동수준이 높은 중·고령자는 활동적 고령화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자의 활동적 고령화 수준에 연령, 형식교육, 무형식교육, 배우자 유무, 취업 유무, 비형식교육, 성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평생학습은 활동적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고령자의 평생학습과 삶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고령자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생애 경험을 통한 학습과 타인과의 관계, 자아의 변화, 중·고령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고등교육과 다양한 종류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참여 효과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연구물은 우리나라 중·고령 성인의 일상적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전반적 학습실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기초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과 평생학습의 실태에 대한 개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물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중·고령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계층과 특성을 지닌 중·고령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과 평생학습 실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고령자들의 생활과 학습을 분석하여 어떠한 규칙성(패턴)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즉, 중·고령자의 일상은 어떠하며, 그들의 학습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중·고령자의 일상적 삶과 학습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평생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여가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에게 평생학습과 제2의 생애와 사회참여에 대한 공적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중·고령자의 일상적 삶과 평생학습 패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규칙성(패턴)이 있는가?

둘째, 중·고령자들의 일상에서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고령자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들의 학습에는 어떤 규칙성(패턴)이 있는가?

셋째, 중·고령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와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고령 성인의 사회문제

중·고령자의 문제란 인생의 중년과 고령 연령대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문제를 말한다. 중·고령자들의 문제는 중·고령자들의 증가하면서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바는 중·고령자의 문제는 그들의 개인적 문제이기 보다는 해당 연령대가 증가함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중·고령자의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였는데, 중·고령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Kim, 2010), 중·고령자의 은퇴와 삶의 질과 평생학습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Kim, 2013; Kim & Son, 2011)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은퇴정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Min, 2002) 등이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중·고령자의 퇴직 준비와 퇴직 이후의 삶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외에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Byun, 2011; Hong, & Yang, 2008; Kim 2003; Kim, 2013; Kim et al., 2016; Kwon, 2006; Ru, Chae, & No, 2017; Woo, Jung, Kim, & Nam, 2014; Yang et al., 2015) 등이 있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고령자들에게 어떤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모두 동질

집단이 아니며 중·고령자 집단을 세분하면, 다양한 특성과 여건과 각기 상이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유사한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제공과 이후의 제 2의 생애설계를 통해 경제활동, 봉사활동, 취미여가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고령자들을 유사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그들의 일상적 삶과 평생학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우리사회의 중·고령자들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고령자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학습을 실천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중년기와 노년기의 특성

인간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존재이다. 중·고령 성인의 생활특성과 학습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중·고령 성인의 생애발달 단계상의 특성을 기존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하여 발달하는 존재이며, 인간발달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론을 발달단계이론이라고 한다(Yang, 2017). 여기서는 인간발달단계이론에 기반하여 중·고령기의 발달적 특성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인간발달이란 인간의 연령 증가에 따라 인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생활과 학습이 어떠한가?’ 하는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발달단계와 해당 단계에 속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발달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인간의 발달은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성과 정서발달, 성격발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의 중·고령자 연구참여자는 40세 이상의 성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40세 이상 중년기와 65세 이상 고령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 발달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중·고령기에 해당하는 이들의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Erikson(1959)은 중년기를 35-55세 사이로 구분하는데,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의 시기로 이해하였다. 즉, 중년기의 발달에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활기차게 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다. 중년기의 생산성은 자신의 내적자원을 생산적 목적을 위해 끌어내고 후속 세대를 보살피는 시기하는 것이다. 중년기에 생산적으로 되는 것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닦는 시기이다.

Havighurst(1972)는 중년기는 생리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았다. 중년기는 정신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존재이다.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고, 배우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피는 시기이다(Na et al., 2016).

Jung(1968)은 중년기를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 구분하고 40세 이전은 외향적 성향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이고, 40세 이후는 내적 추구를 하는 시기로 본다. 중년기는 이 같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시기로 중년기는 내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이다.

한편, Levenson(1998)은 중년기를 40-65세 사이의 연령기로 보았으며, 중년기 대부분은 생물학적 능력은 감퇴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커지는 시기로 중년기를 성인초기전환기(40-45세), 중년기 진입기(45-50세), 50세 전환기(50-55세), 중년기의 안정기(55-65세)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는 시기로 생산성과 침체에 해당하는 시기이며(Erikson, 1959), Havighurst(1972)는 신체변화 적응,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후세를 잘 이끌고, 배우자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 부모님의 부양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로 본다. 그리고 옴은 중년기는 외부 지향적 성향과 내부 지향적 성향의 조화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로, Levenson(1998)의 생애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본다.

한편, 노년기의 특성을 개관하면, 노년기는 Erikson(1959)에 의하면, 자아통합감과 절망감의 시기로 본다. 노년기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통합성, 일관성, 완성성을 인식하는 시기이다. 노년기의 정상적 발달을 이룬 이들은 앞에서 열거한 자아 통합감을 갖는 이들이다. 노년기의 발달에 실패하면, 원망, 상실감, 삶에 대한 불만족이 쌓여서 절망감을 갖게 된다. Havighurst(1972)는 노년기의 생애과업으로 신체적 쇠퇴를 인지하고 건장한 신체를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은퇴, 수입 감소, 배우자의 사망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측면에서 동년배와의 친밀한 관계의 형성, 사회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적합한 생활조건을 갖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Vaillant(1934)는 성공적 노화를 이룬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분석하고, 성공적 노화의 조건으로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 적절한 체중유지, 행복한 결혼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대처, 적절한 교육, 친구관계, 사회참여, 자기통제의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Na et al., 2016).

이처럼 생애발달의 노년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아 통합감을 갖고, 신체적 노화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은퇴, 수입 감소, 배우자 사망에 대한 적응, 친구관계의 유지,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등을 강조하였다. Vaillant(1934)는 실제로 성공적 노화를 이룬 노

인들의 삶의 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Na et al., 2016).

이 연구와 관련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에 있어서 성공적 생애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중요하고,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며, 타인과의 적합한 관계형성, 건강의 유지, 사회적 참여, 경제적 적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고령기의 성공적 발달과 적응을 위하여 학습이 필요하다.

3. 중고령 성인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

이 연구에서 생활패턴이란 중고령자들의 인구사회학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갖는 집단의 생활에서의 규칙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활이란 다양한 형태의 가정생활, 사회참여, 취미여가 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 친교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등 인간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생활패턴’이란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Giele & Holst, 2003). 이처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생활패턴을 형성한다. 여기서 생활패턴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나타내는 생활의 규칙적 양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앞의 다양한 활동이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종교 등에 따라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이란 연구참여자들의 형식교육 참여,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인적 독립적 학습의 실천 등을 의미한다. 교육학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학습은 형식교육 참여로 인한 형식학습, 비형식 교육에서의 비형식학습, 무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식학습으로 구분된다. 형식학습은 학교교육과 같은 형식성이 높은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의미한다. 비형식학습은 학원 등과 같은 형식성이 형식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교육에서의 학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형식 학습이란 인간의 일상적 삶 속에서의 우발적 학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발적 학습은 연구참여자나 연구자가 정확하게 포착하기는 힘든 내용이므로 이 연구에서 이 같은 우발적 학습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다.

한편, ‘학습패턴’이란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양태의 규칙성을 의미한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습패턴의 변화에 관한 추적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의미 지향적 학습은 증가하는 반면에 무목적적 학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정 종류의 학습패턴은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의 학습패턴은 이들이 대학 신입생 시기에 형성한 학습패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Vincent, Liesje, & Peter, 2010). 이들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은 일정한 형태의 학습패턴을 형성하고 이 같은 학습패턴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vid, Vincent, John, & Jan (2013)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학습동기와 학습목적, 학습 접근방식에 따라 독특한 학습패턴을 형성한다. 즉, 그들은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독특한 학습방식이 있고 이 같은 학습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방식을 이해하면, 그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학습방식은 학습지향(learning orientation), 학습패턴(learning pattern), 학습스타일(learning style) 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학습패턴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변인의 영향으로 형성하는 독특하고 규칙적인 학습지향과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양태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규칙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의 학습패턴이란 연구참여자들이 형식교육에서의 학습과 무형식교육에서의 학습실천과 학습양태, 학습모습의 규칙성을 의미한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즉, 성, 연령, 학력, 소득 등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 참여에 있어서 규칙성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응답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반구조화된 심층면접법이다. 일반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문헌에서 도출한 이론과 가설을 토대로 구성하며, 연구자의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작성된다(Park, 2004).

이 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것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성인들의 실제적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것으로 양적연구로는 단순히 계층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상이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속한 이들이 평소 일상적 생활과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연구방법이 연구문제의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사전에 구성된 질문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면접을 실시하는데, 면접을 실행하는 동안 기존의 질문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보다 개방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면접하였다.

이 연구에서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생활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매일의 일과를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연

구참여자들의 학습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평소 어떠한 학습활동을 실천하거나 교육에 참여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형식교육 참여, 비형식 교육 참여, 개인적인 학습활동 실천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표 1> 인터뷰 질문내용

질문 순서	생활패턴에 관한 질문 내용
1	선생님께서 현재 경제적 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 직장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가요? -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 퇴직계획은 어떠한가요? - 퇴직하셨다면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2	요즘 선생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상시간, 식사, 운동, 출근, 활동, 퇴근, 퇴근 후의 하시는 일 등
3	선생님께서 주말에는 무엇을 하면 지내시는지요? - 주말의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4	선생님께서 직장생활 외의 사회활동은 무엇을 하시는지요? - 여가취미, 종교, 봉사활동, 모임, 활동의 목적과 동기 - 사회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 사회활동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5	선생님께서 참여하시는 모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6	선생님께서 실천하시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7	개인적인 건강, 경제적 형편, 생활 만족과 불만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순서	학습패턴에 관한 질문 내용
1	선생님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계신가요? - 어느 학교 무슨 전공이신가요?, 다니시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 학업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졸업하신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	선생님께서 학교에 다니시지 않으신다면 다니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다니고 싶은 학과와 전공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3	선생님께서 현재 평생교육기관에 다니고 계시는지요? -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지요. - 다니시는 목적과 기간, 이후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함께 다니시는 분은 있는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다니시는 분과 모임은 있는지요?
4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으신지요.
5	선생님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6	선생님은 향후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지요?
7	선생님께서 향후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싶으신지요?
8	선생님께서 소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

료는 이후에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인 중·고령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불명확하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중·고령기에 대한 연령적 구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중·고령자를 40대 이상의 성인으로 조작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중·고령자는 중년에 해당하는 이들과 고령에 해당하는 이들을 모두 중·고령자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표집을 임의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중·고령자들의 배경 특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중·고령자들이 표집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그들의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연령, 경제적 수준, 재직여부 등의 변인을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표집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해당 연령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한계는 성별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표집이 되지 못했다. 즉,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22명으로 성별은 여성으로 편중되었다.

이 연구의 전체 연구참여자는 모두 27명이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연구참여자는 여성 22명으로 남성보다 많으며, 연령은 40대가 5명, 50대가 총 13명 60대가 총 9명이다. 학력은 초졸 1명, 중졸 2명, 고졸 4명. 초급대학졸업 2명, 대학 중퇴, 1명, 대학 재학 6명, 대학졸업 5명, 대학원 재학 5명, 대학원 졸업 1명이다. 재직 형태는 무직이 1명, 가정 주부 7명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가 5명, 재직자 11명, 사업자 3명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면대 면으로 직접 만나서 시행하였다. 1인당 면담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이다.

<표 2> 연구참여자 개관

순서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종	소득수준	거주	재직
1	LEE	남	60	초졸	퇴직예정	중	동거	퇴직예정
2	GU	남	60	중졸	퇴직예정	중	동거	퇴직예정
3	JO	여	69	중졸	무직	하	동거	주부
4	CHOI	여	66	고졸	무직	하	독거	무직

순서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종	소득수준	거주	재직
5	OU	여	58	고졸	주부	중	동거	주부
6	PARK	여	63	고졸	식당	하	독거	재직
7	HWANG	여	65	고졸	무직	하	동거	주부
8	JUNG	여	50	초대졸	재직	중	동거	재직
9	SHIN	남	47	초대졸	재직	중	동거	재직
10	IMM	여	43	대학중퇴	무직	중	동거	주부
11	YOON	여	52	대재	사업	상	동거	1인 사업
12	HAN	여	58	대재	재직	상	동거	재직
13	KIM	여	50	대재	재직	하	동거	재직
14	ANN	여	54	대재	재직	중	동거	재직
15	SHIN	여	61	대재	파트타임	상	동거	재직
16	CHOI	여	44	대재	파트타임	중	독거	재직
17	LEE	여	63	대졸	사업	중	동거	주부
18	GO	여	50	대졸	무직	중	동거	주부
19	OU	여	45	고졸	사무원	중	동거	주부
20	LEE	여	50	대졸	외관원	하	동거	주부
21	TAE	여	56	대학원	자영업	상	동거	재직
22	LEE	여	58	대학원	자영업	상	동거	재직
23	CHOI	남	59	대학원	회사원	중	동거	재직
24	PARK	남	44	대학원	회사원	상	동거	재직
25	HAN	여	58	대재	회사원	중	독거	재직
26	KIM	여	51	대재	회사원	중	동거	재직
27	ANN	여	54	대졸	회사원	중	동거	재직

※ 소득수준의 구분은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150만원 미만), 중(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상(3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학력 중 중고령자 입에도 불구하고 대학재학 중에 있는 분들은 성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IV. 연구결과

1. 중고령자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

연구자는 중고령자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그들의 생활과 학습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즉,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학습자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의 분석, 연령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의 분석,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에 대한 분석, 학력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의 분석, 재직형태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의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 분석하면, 남성의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그들은 직장생활과 직장업무가 과중하여 다양한 내용의 사회참여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친목모임, 동창회 모임 정도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말에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친목활동, 사회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 형식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중·고령자의 평생학습 패턴에 관한 분석은 Byun(2011)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의 연구에 있어서는 중·고령 성인의 평생학습 활동수준이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고령층인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는 평생학습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는 이 연구에서도 평생학습 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중·고령자들의 연령은 40대, 50대, 60대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40대의 경우 남성은 직장생활이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전업주부이거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다니는 분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수강자로 참여하고 있다. 40대 남성의 경우는 직장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과정 등에 등록하여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가와 취미생활은 대체로 주말에 낚시를 하거나 등산 혹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연구참여자들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은 50대이다. 50대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하여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인 창업을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도 있고, 전업주부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서 평생교육을 여가와 취미의 차원으로 다니고 있는 이들도 있다.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이들은 여가취미생활은 대부분 주말에 가족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0대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들은 직장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성은 1인 기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규학교 진학, 평생교육 참여, 봉사활동 참여, 여가와 취미생활 실천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은 남성보다는 비교적 사회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대의 경우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는 여성이다. 60대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중졸, 고졸, 성인대학 재학 등 학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60대 남성의 경우는 대졸 이상인 이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학력자의 경우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가 시간이 거의 없고 취미생활은 주말에 개인적 취미생활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60대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으며 이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0대 여성의 봉사활동은 그들의 학력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남성보다 활발하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더 많은 여성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사회활동과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생활패턴 학습패턴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Byun(2011)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적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형식교육, 무형식학습, 배우자유무, 취업유무, 비형식교육,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중고령자의 생활패턴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고, 고학력자일수록 생활과 학습이 활발하고, 직업이 있는 이들의 생활과 학습이 활발하다는 점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점이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은 비교적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소득수준이 ‘하’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령의 저학력자들이 많았다. 이들의 생활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사회생활도 거의 없다. 그나마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이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다.

여성의 경우 이혼 등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그룹에 속하고 이들 중에는 근로직이나 프리랜서 강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규교육 성인반에 참여하여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남성 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하여 사회활동이나 평생교육 참여 등이 저조하기 때문에 연구 표집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소득 수준이 ‘중’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이 ‘중’에 해당하는 이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도 다양하다. 소득수준이 ‘중’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남편이 소득이 있어서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자체를 삶의 일부로 여기는 이들도 있고, 자신이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소득수준이 ‘중’에 해당하는 이들은 직업생활과 더불어 교육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규교육의 경우 온라인 형태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역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차원에서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수준이 ‘중’에 해당하는 이들은 평생학습참여, 봉사활동, 다양한 종류의 사교모임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상’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는 소수이기는 하나 이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본인이 맡고 있는 사업이나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시간을 해당 일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사회활동으로 사업상에 필요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진학, 대학원 진학 등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주로 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중고령자의 생활과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Che, Kang, & Kwon(2016)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력이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와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고령자의 경제력 변인으로 설정한 용돈과 미래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데, 이 연구에서도 중고령자의 소득수준이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소득의 여유가 있는 계층의 활동이 활발하고 학습참여가 높다. 이는 고령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이들의 기본적 심리·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평생학습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은 국가와 공적 차원에서 중고령 성인의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이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중고령자에 대한 생활과 학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학력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학력에 따른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저학력자로, 초급대학 졸업부터 대학졸업자까지는 ‘중’ 학력자로, 대학원 재학이상을 고학력자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저학력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자들이다. 이들의 특성은 남성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한 직업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활동은 동창회, 향우회, 운동하는 모임 등 소수의 사회적 친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생교육이나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비교적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이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이들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살펴보면, 앞에서와 같이 대학교 재학, 중퇴, 대졸까지를 ‘중’ 학력자로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중’ 학력에 해당하는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저학력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 남성은 직장생활이 중심이고 평생교육 참여는 비교적 저조하고, 교육에 참여할 경우에도 정규교육이나 학원 등에서 영어를 배우는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중’ 학력 수준의 여성의 경우는 학위과정이나 대학원 등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두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중’ 학력 여성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즉, 취미나 관심을 충족하고 여가생활을 위하여 다니는 경우, 공부결과를 활용하여 봉사활동 실천을 위하여 다니는 경우, 학습한 바를 직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 학력자들 중에는 직장일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정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중’ 학력 남성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여성보다 저조하다. 이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파트타임 일이 아닌 전 일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재직 남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력 상으로 대학원 재학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이들이 다수이며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생활과 사회적 교류활동, 봉사활동, 취미여가 활동 등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대학원 학업이 장차 본인의 본업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지 자기개발을 위하여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부는 현재 본인이 하는 일과 대학원 공부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고학력자들은 ‘저’ 학력이나 ‘중’ 학력보다 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정규교육 과정에 다른 학력집단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이들의 봉사활동은 재능기부 활동이나 경제적 기부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평생교육 참여가 활발하다는 선행연구 Che, Kang, & Kwon(2016), Lee & Han(2006) 등과 Byun(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생활과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참여자의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및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른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또한, 오늘날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정책, 노년의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노년이 되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편견이 사라지기를 희망하였다. 일부 의견으로 자녀들의 교육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형식교육, 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자녀들의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여성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사나 그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즉, 경제적 지원,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학비지원,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연구참여자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평생교육, 정규교육참여, 봉사활동 참여 장(場)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여성 참여자들은 남성 참여자에 비하여 세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연령대에 따른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40대의 경우에는 정규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학비지원, 지원시스템의 마련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등을 희망하고 있다. 50대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생활과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희망 내용이 다양하였다. 본인이 관심 있거나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심화된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희망하였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참여 지원체제를 마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교육이나 정규교육에 소요되는 학비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정규교육(대학 및, 대학원 교육) 등 모든 유형의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학비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평생교육과 정규교육 참여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 즉, 학비문제가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0대 연구참여자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 중 고령자들은 소득이나 학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수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학력은 중졸이나 고졸이고, 경제적으로 ‘중’이나 ‘하’에 속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국가가 기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60대 참여자들은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를 희망하였다. 국가에서 평생교육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을 희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하’에 속하는 집단의 생활과 학습요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령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자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는데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처럼 고령자를 위해 그들의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 요구를 조사하여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이 ‘중’에 해당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양한 내용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은 평생교육, 형식교육 참여에 필요한 학비지원, 다양한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주는 것에 대한 요구, 봉사활동의 장(場)과 기회마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생활이나 학습에 대하여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었다. 이들은 개인적 희망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성공해서 기부나 사회에 대한 환원을 희망하고 본인이 봉사활동이나 전문가로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상’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국가나 공적으로 지원을 받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향후 자기계발과 사회에 대한 봉사, 본인의 성취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소득수준 집단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하고 더불어 그들의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생활양상과 학습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공적 지원체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지, 사회참여는 어떠한지, 개인적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은 어떠한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한편으로 학습의 측면에서 평생교육 참여, 형식교육 참여, 자기주도 학습의 실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그들의 현실적 여건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앞에서 열거한 생활과 학습의 실천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같은 생활과 학습에 패턴을 찾을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어떤 규칙성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에 따라 생활과 학습 패턴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유사한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생활과 학습패턴은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그들의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집단별로 규칙성 즉,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생활과 학습이 그들의 개인적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발견은 역으로 국가가 중·고령자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모든 중·고령자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국가가 중·고령자의 생활과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들이 속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동질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상이한 지원정책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연구자가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중·고령자에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원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위한 환경과 제도구축이 미흡하다. 특히,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하지 않다. 저소득층, 저학력층,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소외집단에 대한 우선적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저학력자들은 저소득자이고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생활과 학습 양면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 ‘중’ 이하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중산층은 본인 스스로 형식, 비형식교육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활동과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중산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산업선진국처럼 형식교육과 고용능력 향상교육에 대한 학비지원이 적극적으로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중’에 해당

하는 집단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제 학교교육만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평생교육을 국가가 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직장인 중년남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인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지원의 외곽에 놓여있다. 직장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유급학습휴가제’ 도입과 직장인에 대한 학습지원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 집단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그들의 생활과 학습 패턴의 이질성이 있고,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집단은 유사한 생활과 학습패턴을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중·고령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과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Byun, J. H. (2011). *A study of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learning patterns and active aging*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e, S. E., Kang, G. S., & Kwon, Y. W. (2016).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factors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nd life satisfaction rat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year 2016. Seminar Book.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Choi, S. J. (2016). *Qualitative case study on learning experience of middle-aged career woman at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Centered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David, G., Vincent, D., John, R., Jan, V. (2013). *Learning patterns in higher education : dimensions and research perspectives*. Hoboken: Tatlor and Francis. Electronic books.
- Erikson, E. H. (1959). *Identity &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iele, J. Z., & Holst, E. (Eds.). (2003). *Changing life patterns in western industrial societies* (Vol. 8). Elsevier.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McKey.
- Hong, S. T., & Yang, H.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an older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and aged people to preparation of aged year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ntents*, 8(5), 287-299.
- Jang, I. H. trans. (1971). *Human behavi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Seoul: Sumunsa.
- Jun, M. S. (2016). *Research trends of lifelong education for Korean middle-aged woman: focused on the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Danguk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C. G. (1968). *Analytical psychology it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Vintage.
- Jung, K. H. (2017).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elderly learners participating in lifelong learning programs at senior citizen center* (Doctoral dissertation). Backsuk University, Chunann, Korea.
- Kim, J. Y. (2017). *The case study about three ole woman's life history of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yeungsan, Korea.
- Kim, K. H. (2003). *A study to develop of lifelong learning model connection to labor market*. Seoul,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Kim, M. J. (2013).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and their roles in lifelong learning : Baby boomer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9(2), 23-50.

- Kim, M. Y. (2010). *The effect social class and social networks on mental health of the Korean mid-elderly peopl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Y., & Son, S. H. (201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retirement and quality of life after retirement of elderly Korean ma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15*(4), 65-78.
- Kwon, D. B. (2006). A study to build a couple of models lifelong learning for middle and older people regarding changes of labor market. *The Korea Education Review, 12*(1), 103-127.
- Lee, E. K., & Han, J. R. (2006). *Active aging and higher education*. Seoul,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Levenson, D. J. (1998).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Kim, A. S. trans. (2000). *Four seasons of woman lifetime*. Seoul, Korea: Sejong Research Institute.
- Min, K. J. (2002). *A study of policy plan for retirement of middle and older people* (Master's thesis). Hangeung University, Seoul, Korea.
- Na, H. J., Kang, K. W., Kwon, H. W., Kim, K. M., Park, S. H., & Song, S. H. (2016). *Adult learning and counselling*. Seoul, Korea: Yswpub.
- Park, S. H. (2004).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Korea: Saramin.
- Ru, J. S., Chae, J. E., & No, K. R. (2017). *A study to Invigoration consumer ordered lifelong education model*. Pusan: Bukyeung University.
- Vaillant, G. E. (1934).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 Vincent, D., Liesje, C., & Peter, V. P. (2010). Learning pattern development throughout higher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3), 256-259.
- Woo, Y. H., Jung, H. R., Kim, Y., & Nam, C. W. (2014).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portfolio to support learning & career management based on lifelong learn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4), 217-219.
- Yang, H. K. (2017).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Seoul: Shinjung.
- Yang, S. S., Yang, H. K., Kim, S. H., Kim, H. S., Han, J. R., & Im, Y. H. (2015). *A study on improving efficacy of lifelong learning in an aging society*. Research Report RR 2015-17.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